

회장 신년사



“ 어촌 어항 어장의 연계개발로
한국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



한국어촌어항협회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6년에는 새해를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해 12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이제 우리 수산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업여건의 악화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어촌·어항법을 제정, 어촌과 어항과 어장을 일체로 하여 풍요로운 연안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변화의 기초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 성과를 크게 올렸으며 국가어항배후부지이용계획 수립과 어항수요 및 지정기준 산정, 연근해 주요어장에 대한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조사 연구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8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을 일본과 유럽으로 파견, 국제 기술교류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또 다기능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및 어항청소선 운영과 함께 침체 어망 인양, 해양폐기물 수매사업 등 어항은 물론 연안어장 정화에도 진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아름다운 어촌 100선 안내 책자, 한국의 어항 홍보집,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는 길 안내 지도 등을 제작 보급하여 어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수산인 여러분!

미래의 수산업은 어업인들이 깨끗하게 관리된 어장에서 수산물을 수확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항에서 양륙, 저장, 가공하여 신속히 유통시키는 고부가가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의 관광 휴양 수요를 흡수해 어업 외 소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협회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발족과 함께 업무를 대폭 확대, 어촌 어항 어장의 조사 연구,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항내 유지준설 등 어항 관리, 어촌 어항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어항 어장의 정화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촌과 어항을 관광자원화하고 바다문화의 발굴과 창달을 통해 어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일반 국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조직을 팀 및 사업부제로 재편하고 정예 기술인력 충원과 첨단 장비의 확충으로 수산기반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전문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국토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배 평 암